



상월공소(논산대교동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대림 제4주일 | 2024년 12월 22일(다해)

제1독서 미카 5,1-4ㄱ

제2독서 히브 10,5-10

화답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등부 예비신학생 캠프
2025년 1월 8일(수)-10일(금)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신입복사단 캠프
2025년 1월 16일(목)(1차)
1월 17일(금)(2차)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중등부 예비신학생 캠프
2025년 1월 21일(화)-22일(수)(1차)
1월 23일(목)-24일(금)(2차)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행복을 들고 먼저 나를 찾아오신 당신



이진욱 미카엘
원신흥동 주임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간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칭송 속에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확증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루카는 표현한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외쳤다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마리아는 이 표현을 메시아 탄생 예고의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미 들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 그리고 믿었다. 오늘 엘리사벳은,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되고, 한편으론 무겁고 거부하고 싶은 그 일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을 확증해 주고 계신다.

언뜻 보기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를 우리는 사실 확인의 차원이나, 연하의 위치에서 웃어른을 먼저 찾아 뵙고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당위성, 또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기쁨을 공유하고 같은 처지를 나누기 위해 찾아갔을 것이라고 묵상한다.

물론 그렇게 묵상해도 좋겠지만 본질은 기억하자. 중요한 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 하느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먼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의 선구자 요한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느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인간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을 항상 먼저 찾으신다. 그게 하느님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까지 품을 수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의 대단함? 그 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렇다. 행복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고, 말하고, 갈구하는 행복이다. 우리는 이 행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분주히 움직이며 사는가?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무엇을 가지고, 얻고, 모으고, 입고, 치장하고, 먹고, 의지하며 사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과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행복의 조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이유를 나는 생각한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을 말이다. 다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림 시기를 통해 교회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회개를 가르쳤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 깨끗한 빈 그릇으로 마련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그릇 안으로 완전한 행복인 하느님이 스스로 자신을 담아 넣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들고 친히 먼저 나를 찾아오시겠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눈을 열어 주소서.”(시편 119,18)

해외 선교지 몽골, 그곳은

어느덧 몽골의 길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늦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응하여 웬만한 추위는 견딜 만하지만, 여전히 영하 30도에 가까운 혹한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 할 일이 많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온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다 보면 수도관이 동파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분주히 움직여야 합니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빼거나 비상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며 동파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창 운영비가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몇 달간 게르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휴양지에서의 낭만적인 게르 체험과는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실제 게르에서의 생활은 지혜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난로는 석탄을 3~4시간마다 보충하지 않으면 불이 꺼져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다시 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기가 역류해 방 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차서 화생방 훈련을 혼자 하기도 합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방 안의 모든 것이 팡팡 얼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치 냉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지곤 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바닥에는 거뭇한 석탄재가 묻어납니다. 석탄재가 폐 속에도 쌓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건강이 신경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게르에서 요리하고 씻고 빨래하는 일은 번거롭기 그지없습니다. 어느새 땀국물이 묻은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게르의 경험은 현지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수도물, 주방,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방문을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게르 생활을 하면서도 깔끔하고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요리와 빨래도 스스로 하며 동생들까지 챙기면서 바지런히 성당에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고 대견스럽습니다. 어설픈 제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며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시편 119,18)



● 노상민 토마스 신부 몽골 선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4. 전자제품들도 하루는 쉬게 하기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해마다 지구의 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합니다. 10분간 정부 공공기관, 기업 건물 등의 조명을 소등하고 많은 시민에게도 이 행사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분간 (모두가) 조명을 끌 때 약 52만 톤의 이산화탄소, 즉 30년 된 소나무 약 8천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만큼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10분, 다 같이 불을 껐으니 ‘나는 올해 뭉의 환경보호 실천은 다 했소!’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10분을 끌 수 있으면 15분, 20분도 끌 수 있습니다. 우리집 전등 하나를 끌 수 있으면 다른 전자제품도 끌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은 절전 운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탄을 맞아 지구를 위해 전자제품을 하루 쉬는 것 (전기 단식)을 제안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을 쉬기가 어렵다면, 한 개라도요. 아직도 세상에는 평생 단 한 번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휴식 혹은 단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명에서 조금 빗겨 나 그 관심을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말씀이신 하느님은 처음에 바람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끊임없는 초대와 선배 신앙인들의 모범이라는 강한 바람은, 제 마음속 완고함이라는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이어진 모습은 지진이었습니다. 제 영혼과 온 존재, 모든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성경 묵상과 그룹모임이라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이셨지요. 말씀 봉사에 대한 열정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을 제 마음에 지르시어 100명이 넘는 그룹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3~5명의 청년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룹모임 봉사를 저는 찾아 나서서 하는 편입니다. 그룹원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이고, 봉사자가 없는 본당을 찾아가거나, 개인 SNS에 그룹원 모집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역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한 선배 봉사자들에 의해 찾아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창세기 그룹모임을 해 보자는 선배들의 제안을 서너 번 거절하였지만, 선배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느님 말씀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말씀과 봉사 안에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아기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 바다의 물에서 건져내는 하느님의 도구 되었듯, 하느님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복된 책임감이 제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그룹봉사 여정은 주어진 것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바라는 모습임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봉사자임을 깊이 체감하는 순간은 그룹모임을 준비하며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1열왕 19,12)를 마주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봉사 여정에서는 그 행복을 흔드는 시련도 찾아오는데, 특히 하느님 말씀을 함께 기쁘게 전했던 동료들이 쉬는 교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요한 복음서 6장 말씀처럼, 생명의 빵을 먹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 이들을 바라보며 허탈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희망을 발견한 곳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는 질문에 곧이어 나오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시련이라는 갈림길에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없고 자신이 먹었던 생명의 빵도 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고자 했던 시간이 내 선택이 아닌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을 떠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청년 시기를 보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문턱에서 제가 하고 싶은 봉사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찾아나설 수 있는 용기를 청해봅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설렘으로 시작하여 파스함으로 마쳐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전성모병원 개원 55주년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올해 개원 55주년을 맞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 교직원, 이념구현 교직원 및 부서, 협력업체 공로 표창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성모병원은 1969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4개 진료과, 46병상으로 개원한 이후 1975년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인가받으면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성장했으며 현재 35개 세부 진료과 609병상을 운영, 환자들을 위한 전인치료에 힘쓰고 있다.

강전용 병원장은 “올 한 해 뜻하지 않은 의료사태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온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 희망, 사랑’을 바탕으로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라는 우리 병원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아픈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직원 표창은 40·35·30·25·20·1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로 표창이 이뤄졌으며 병원 이념 구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념구현부서는 △신경외과 △간호행정교육팀 전담 간호파트 △병동2팀 63병동파트가 선정됐다.

이강우(알베르토) 사제 부친 선종

이강우(알베르토) 사제의 부친 이기정(야고보, 향년 77세)님께서 2024년 12월 12일(목) 선종 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12월 16일(월)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담사목

젊은이 성령기도회

- 대상 : 교구 모든 젊은이
- 때 : 2025.1.7(화) 20:00
- 곳 : 새얼센터 (대전 유성구 지족로 306)
- 문의 : 카톨릭친[아자리아], (042)824-6773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ME 소개

- 때 : 2025.1.5(주일) 15:00
- 곳 :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대전가톨릭문화회관216호, 천안신부동성당
- 대상 : 혼인 2년 이상된 부부(종교불문)
- 신청문의 : 010-7643-1187, 010-2657-1187
- 인터넷 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본 당

대전 해수욕장 성당 & 연수원 채용공고

- 대상 : 관리자 1명 (65세 이하 지원 가능)
- 업무 :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정비
-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 접수 :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제출
- 문의 : (041)934-7758, 팩스 (041)394-7736

천안아산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 대상 : 천안아산 지역의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목요일반
 - 예비반 / 초1, 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3~중2(중3까지 활동) / 연습 17:00~19:00
- 고학년반 / 중2~고2 / 연습 19:00~21:00
- 금요일반
 - 예비반 / 초등1, 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등3~중3까지 활동 / 연습 18:00~20:00
- 문의 : 010-4417-1136 지휘자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파티마 세계사도직 (빨)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2025.1.4(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3450-6533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송년미사

- 때·곳 : 12.26(목) 14:00, 원신흥동성당
- 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12월 월례회

- 때·곳 : 12.30(월) 14:00~16:00, 대전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리스 만들기, 주님 세례 축일
- 문의 : 010-4171-9145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2025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2.11(화)~22(토)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 525만원 (대한항공)
- 2.19(수)~3.1(토) 이탈리아(11일) / 520만원 (대한항공)
- 3.24(월)~28(금) 나가사키, 고토(5일) / 195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신청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 (02)852-8525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 : 미사 반주자
- 때 : 매주 금요일 11시
- 곳 : 병원 상지관 5층 경당
- 자격 : 만 20세~65세 가톨릭 신자
- 문의 : 원목실 (042)220-941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1,2,3,4,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문의 : (042)825-3182

국공립 유성어린이집 2025학년도 원아모집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 문의 : (042)822-2185
- 대상 : 2022년생, 2023년생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과정 모집

-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 원서 : 2025.2.14(금)까지
-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문의 : (02)2274-1843, www.cdcc.co.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 취업률 79.8% 전국 6위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 모집 :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전공)
- 원서접수 : 12.31(화)~2025.1.3(금)
- 문의 : (043)270-0100, 0119

마음학교 가계도중심

- 때 : 2025.1.13(월)~3.31(월) 19:30~22:30 비대면(온라인 줌으로 진행)
- 10주 과정 / 선착순 20명 모집
- 신청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노인 상담 봉사자 교육

- 때 : 2025.1.16~2.27(목) 10:30~13:30
- 곳 : 대전 중구 대종로 471 4층 마음정원
- 6주 과정 / 선착순 10명 모집
- 신청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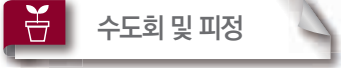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 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정형외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문의 : 010-3645-902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봉헌 하고자 하는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010-5195-3217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 대상 : 40세 미만 미혼여성으로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 카카오톡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 문의 : 0507-1306-1505

청주 초정성령회관 2박3일 송년대피정

- 때 : 12.27(금) 20:00~29(주일) 14:00
- 회비 : 2만원(청소년 무료)
- 강사 :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 버스 : 조치원 역 저녁 18:2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출발
- 곳 :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우리성서모임 겨울특강

- 주제 : “친절하게 나를 돌보는 오감마음 챙김” 배우기
- 때 : 2.16(주일) 10:00~11:50
- 강사 : 최대현(다니엘) 박사
(회복 탄력성 교육상담센터)
- 곳 : 중구 대흥로 62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 문의 : 우리성서모임(010-2985-9020)
- 특강비 : 3만원

성모술숯 무료 치유대(對)피정

-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 때 : 매월 둘째주 금~주일 (2박3일)
2025.1.10~12, 2.7~9, 3.7~9, 4.11~13
- 문의 : 010-3209-3955 [문자접수]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때 : 2025.2.7(금)~9(주일)
- 곳 : 살레시오회 관구관
- 대상 : 건강한 고1~35세 미만 남성
- 접수 : 2025.1.31(금)까지
- 문의 : 010-6221-3520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5년 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2.18~5.20 - 평일반 또는 토요일반
- 곳 : 섭리C.P.E센터 / 8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우리성서모임 32기 신입생 모집

- 내용 : 우리성서모임 (창립 32주년) 신입생 모집
- 정규반(목) / 단기반(화,수,목 주1회 가능한 요일)
- 시간 : 오전반 09:30~11:30 / 저녁반 19:00~21:00
- 곳 : 대전 중구 대흥로 62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 개강 : 3월 첫째 주간(입학미사 : 25년 2월 16일)
- 문의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한라산눈꽃산행포함 : 2025.1.17~19, 1.23~25 2.8~10, 2.14~16, 2.22~24
- 추라도포함성지순례 : 3.1~4, 3.9~12, 4.2~4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한라산눈꽃산행 : 2025.1.11~13, 1.16~18, 1.20~22, 1.24~26, 2.7~9, 2.15~17(제주T/S), 2.21~23, 2.25~27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 성경완독 : 2025.1.2(목)~10(금), 2.14(금)~22(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 3,500,000원(성환)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강사/내용	비고
상설 미사	매주 화 14:00	치유미사	
	매주 수 10:30	전구기도미사	
	매주 토 10:30	성모신심미사	
송구영신 철야 기도회	12.31(화) 22:00 ~ 익일 04:00	송년미사, 기도회, 초봉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12.27(금) 13:30	강사 :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내용 : 말씀, 미사, 안수 등	1월 한 달 기도회 휴회

기타 : 12.26(목) 은혜의 밤 휴회(송구영신철야기도회 대체)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78.3°C

총 모금 783,230,054원

[12.1~8 모금액] 8,405,200원

본당 6,006,910원 / 개인 · 기관 · 행사 2,398,290원

현대정형외과

- 척추, 관절, 통증, 재활 -
원장 : 이정구 (시문)

T. (042)621-7585 동구 가양초 사거리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2/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T.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박상도(펠릭스)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 (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김대영(베드로)외 8인 협진
T. (042)489-8888 유선온천역 1번출구 5분거리

산드로 보티첼리의 신비한 탄생



산드로 보티첼리, 신비한 탄생, 1501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이 화가는 종교적 주제와 고전 신화를 아름답고 복잡한 그림으로 잘 표현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동방박사의 숭배” 등이 있다. 모든 이상적인 구유를 표현한 작품 중에서 그가 1501년 그린 ‘신비한 탄생(Natività mistica)’은 가장 눈에 띄는 구유를 가진다.

그림 하단에 보이는 길의 지그재그 구조는 그림 상단에 표현된 천사들의 영광 원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림 중앙에는 헛간이 있는데 황소와 나귀가 있다. 서 있는 나귀는 헤로데 왕의 영아 학살 명령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될 미래를, 그리고 나귀의 등에 그려진 십자가 표시는 십자가 처형 전에 나귀를 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기 예수를 싸고 있는 흰색의 천이 마치 수의 처럼 보이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마구간이 아닌 동굴로 그린 것 역시 예수가 훗날 묻히게 될 무덤을

연상시킨다. 구유 옆에 성모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아기를 경배한다. 그녀의 붉은색 옷은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며 푸른색 망토는 주님이신 예수에 대한 충성을 상징한다. 반면 예수의 양부인 요셉은 묵상하거나 잠자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림의 오른쪽과 왼쪽에 ‘신비한 탄생’의 두 증인 그룹, 즉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각각 천사에 이끌려 예수를 경배한다. 이 목자들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라는 천사들이 전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무릎 꿇고 경배한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루카 2,20)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릴 목자들이 최초의 경배자요 복음 선포자라고 할 수 있다.

헛간 지붕에는 세 천사가 손에 올리브 가지를 엮고 영광송을 노래하고 있다. 그림의 가장 위에는 올리브 가지를 든 열두 천사가 성탄 노래에 맞춰 둥글게 춤을 추고 있다. 그림의 가장 아래에는 연옥의 불길에서 탈출한 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포옹 받고 있다. 지붕 위의 세 천사와 그림 가장 아래의 세 천사는 흰색과 초록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흰색은 믿음을, 초록색은 희망을, 붉은색은 자비를 상징한다.

환상적인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종교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중요하다. 영혼의 구속과 함께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의 도입은 “선의를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의 시각화일 수 있는 올리브 나무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우주적 평화의 시기를 가리킨다.

보티첼리는 신비한 탄생의 현장에 다다른 길을 지그재그로 표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겪어야 할 고난과 수난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앙의 길에 놓인 고된 난관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상 여정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기쁨과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겸 솔위 교구역사관 관장

회경축을 맞은 윤영균 미카엘 신부 회경축 감사미사



교구 성사전담사제 윤영균 미카엘 신부의 사제서품 60주년 ‘회경축 감사미사’가 12월 7일(토) 반석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이날 회경축에는 교구장 김종수 주교, 총대리 한정현 주교, 많은 사제와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미사 봉헌과 축하연을 했다.

제55차 평단협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임우택 살레시오, 담당 김경호 신부)는 12월 7일(토)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본당 98개, 인준사도직단체 13개, 평단협 상임위원 등 총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평단협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곤솔라따 선교 수도회 감사미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2월 8일(주일) 곤솔라따 선교 수도회 창립자인 요셉 알라마노 신부의 시성 감사미사를 전민동성당에서 봉헌했다.

대전직장직종사목부 대림피정



대전직장직종사목부(전담 허승현 신부)는 11월 30일(토)~12월 1일(주일) 합덕성당에서 “주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입니다.”(시편 119,105)라는 주제로 대림피정을 했다.

태안본당 세례식



태안본당(주임 곽승룡 신부)은 12월 7일(토) 18명의 세례식을 했다.

6개월 동안 교리를 공부하여 결실을 맺는 시간으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했다.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개관식 및 축복식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12월 6일(금)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개관식 및 축복식에 참석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60㎡ 규모로 건립된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조미김과 모시떡 생산공간,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신앙교사자격연수 수료미사



청소년국(국장 조수환 신부)은 12월 8일(주일) 성남동성당에서 ‘2024년 신앙자격연수 및 수료미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리교사의 신원’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고, 이후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집전으로 수료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중 2024년 교리교사학교 수료대상자 115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기도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12월 9일(월)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거행했다.

1부(시국미사), 2부(정의평화대행진)로 진행된 기도회에는 사제단 120명, 수도자 및 신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산성동본당 봉사자 워크숍



산성동본당(주임 이재 신부)은 12월 8일(주일) 2025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해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총무, 사도직단체협의회장, 임원 등 80여 명의 봉사자가 모여 ‘2024년 산성동본당 봉사자 워크숍’을 진행했다.